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19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절단한 다리 재활용품으로 버린 인천 요양병원 경찰 “불법 수술·폐기물관리법” 수사	사회	
2	치명적 실수 한 번에 무너진 한국, ‘개최국’ 멕시코에 0-1 패	스포츠	

(1)기사/뉴스요약

지난 10일 인천 송도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요양병원의 불법 수술과 의료폐기물 처리·관리 실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단된 다리를 재활용품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인천 중구의 A요양병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A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 B씨와 유전자(DNA)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재활용품 공공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다리는 병원 자원봉사자가 잘못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오후 5시쯤 요양병원 간호과장과 관리소장은 송도에서 다리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 내 폐쇄회로(CC)TV와 병원 관련자 진술을 들어 요양병원에서 배출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유전자를 채취,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해 발견된 다리와 같은 유전자라는 것을 통보받았다. A요양병원은 지난 8일 고령으로 다리가 괴사 중인 B씨의 다리를 절단, 봉대로 감싸 의료폐기물 용기에 폐기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9일 요양병원 자원봉사자 60대 C씨는 쓰레기통 청소 중 옆에 있던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안에 있던 다리를 김스용 석고로 잘못 알고 재활용 봉투에 담아 배출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이 일반 병실에서 B씨의 다리를 절단한 것으로 보고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사전 선별과정 중 훼손된 시신 일부인 왼쪽 다리가 발견됐다. 국과수는 발견된 다리 크기는 210mm,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cm, 키 161~165cm 에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 경찰에 통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 그동안 다리가 재활용품으로 반입된 경위 등을 수사했다.

요약 :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 송도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요양병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이 일반 병실에서 B씨의 다리를 절단한 것으로 보고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기사/뉴스요약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9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멕시코와 2차전에서 0-1로 졌다. 이날 패배에도 한국(승점 3)은 멕시코(승점 6)에 이은 2위를 유지했다. 앞서 열린 A조의 또 다른 2차전에선 체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상 승점 1)이 1-1로 비겼다. 전반까지는 나쁘지 않았다. 한국은 상대의 거친 축구에 영리하게 대처했다. 템포를 끌어올리는 상대와 맞불을 놓는 게 아니라 라인을 굳히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갔다.

전반전 슈팅 숫자에선 2개 대 4개(유효슈팅 1개)로 밀렸다. 그래도 최전방에 배치된 손흥민(LAFC)을 겨냥하는 롱패스가 연결될 때마다 상대 수비가 흔들리면서 균형은 잃지 않았다.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온 전반 16분 손흥민의 칩슛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전반 41분 설영우(즈베즈다)의 첫 슈팅이 나왔지만, 그 이전에도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는 일품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후반 5분 어처구니 없는 실책에 선제골을 내줬다. 내주지 않아도 되는 골이었다. 골키퍼 김승규(도쿄)가 공중볼을 잡아냈지만 착지 과정에서 수비수 이기혁(강원)과 부딪치며 공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이 공을 멕시코 미드필더인 루이스 로모(과달라하라)의 오른발에 걸리며 골망이 흔들렸다. 김승규는 실점 직후 안타까움을 호소했지만, 실점은 실점이었다. 불운한 선제골은 상대가 수비에 전념할 여유를 줬다. 한국이 후반 12분 손흥민과 이재성(마인츠) 대신 오현규(베식타시)와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했지만,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려앉으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마지막 승부수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의 ‘신데렐라’ 조규성(미트윌란)이었다. 후반 32분 교체 출전한 조규성은 자신이 왜 페널티지역의 지배자로 불리는지 입증했다. 조규성은 후반 42분 엄지성(스완지시티)이 올린 크로스를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헤더로 연결했다. 득점에 가까운 장면이었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쇼에 가로막힌 게 아쉬웠다. 조규성은 종료 직전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 에 이은 헤더슛을 재차 날렸지만 수비수 몸에 막히고 말았다. 결국, 남은 시간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리지 못하면서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요약 :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대표팀이 멕시코와의 예선 2차전에서 0-1로 패배했다. 예선 1차전에서 나란히 승리했던 두 팀은 전반전은 득점없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한국은 후반 5분 골키퍼 김승규와 수비수 이기혁이 부딪치는 과정에서 공을 떨어뜨리는 실책에 선제골을 내줬다. 경기 후반 황희찬, 조규성 등 공격수들을 대거 투입하며 득점을 노렸지만 기울어진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리지 못하며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베켓 법칙	금융위기 시 중앙은행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해 충분한 담보를 전제로 높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시사상식사전
2	슬로파간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량 생성한 자극적이고 허술한 콘텐츠로 대중의 인식과 감정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선동 방식을 가리킨다.	시사상식사전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전도사 켄슨 황이 만드는 환각 / 손제민 / 경제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지난달 한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들의 구직 불안을 이해한다면서도 AI가 바꿀 미래에 적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야유가 쏟아졌다. 빅머신 레코드의 CEO 스크트 보르체타가 다른 대학 졸업식에서 “음반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순간에도 AI가 음반을 다시 쓰고 있다”고 말하자 역시 학생들의 야유가 나왔다. 보르체타는 굴하지 않고 말했다. “받아들여라. 여러분이 지금 내 얘기를 듣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를 것이다.” 야유는 더 커졌다.

퀴니피엑대 3월 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들이 AI가 일상생활, 직업, 교육 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 미국인들은 기술기업들의 AI 개발·활용이 투명하지 않고, 정부 규제가 충분치 않다고 했다. AI의 의료·군사 이용에 부정적이며,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여론도 높았다. AI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모든 영역에서 전년보다 늘어났고, 특히 AI에 익숙한 Z세대(1997~2008년생)에서 가장 반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고삐 풀린 개발과 무차별적 활용으로 인해 취직 전망은 더 어두워졌고 인간관계는 더 단절됐으며 기후와 환경이 악화되는데,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겠는가.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이고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이런 세상에서 더 오래 살아가야 할 사람은 또 누구인가. 그런데도, ‘바꿀 수 없는 흐름이니, 적응해야 한다’니.

처한 상황은 다르지 않지만, 한국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최근 한국은 온 사회가 나서 켄슨 황 엔비디아 CEO를 극진히 모셨다. 그는 AI 주요 구성품을 독점 설계하는 사업가일 뿐이지만, 한국에서 그 영향력은 가히 신적이라 할 만하다. 관료, 기업인, 대학 총장, 언론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고, 하루에 닭을 몇 마리 먹었는지까지 화제가 됐다. 하지만 AI 업계의 거품 섞인 막대한 순환투자 고리 속에 국가 경제가 더 깊이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부각하지 않았다. 신기술에 대한 이토록 열렬한 반응이 어디서 기인하는지는 깊이 탐구해봐야 할 것이다. 식민 지배와 분단에 이은 압축적 근대화를 거치며 정신적 가치나 공동체가 급속히 해체되고, 돈과 힘이 온 사회의 최우선 가치가 된 것과 관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로봇스님’을 선보인 조계종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인간성 상실 위기에 대한 종교적 성찰과 혜안을 찾기 어려웠고 대중의 흥미에 편승해 관심을 끌어보겠다는 얇은 계산만 보였다. 레오 14세 교황이 오랜 토론 끝에 인간 존엄성, 관계의 의미,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비판하는 회칙을 내놓은 것과 대비됐다.

정부의 책임도 크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은 압도적으로 산업 진흥을 통한 자본의 이윤 창출에 치우쳤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민간위원 36명이 대부분 산업, 과학 기술계 인사로 채워졌고, 노동계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이 잘 보여준다. 노동 현장에서 AI 도입을 구실로 신규 채용을 꺼리고, AI가 힘든 일을 줄이기보다 노동을 착취하고 배제하는 쪽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 분명해진 상황에서도 국가의 정책 담론에는 그런 우려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향후 이재명 정부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켄슨 황에 이어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다시 한국에 온다고 한다. AI 전도사들의 잦은 방한, 과연 중복일까.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신은 출애굽기 속 황금송아지가 아닌가.